신성민 기자의 OTT in Buddhism ①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



▶ 한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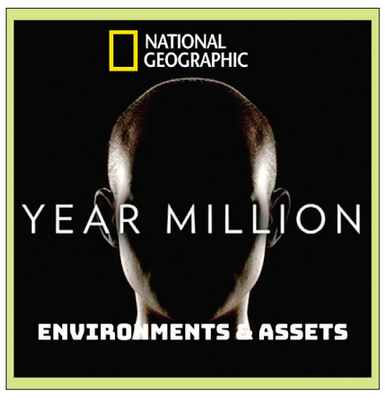
디즈니플러스에서 독점 제공되는 가상 다큐멘터리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원제 Year Million)'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뤄낸 먼 미래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 초지성 안드로이드가 존재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장수의 삶을 살며 죽음을 극복한 미래에서 과연 인간은 인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먼 미래, 인간은 인간일 수 있을까

바야흐로 OTT(Over The Top)플랫폼 전성시대다.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OTT플랫폼은 단순히 기존 영상 스트리밍을 넘어 자체 제작콘텐츠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모든 영상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얼 봐야 할지를 고민한다. 특히 불자라면 범람하는 OTT 영상콘텐츠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을 법하다. 그래서 OTT 플랫폼 속 불교 관련 영상콘텐츠를 살피고 소개한다. 격월간으로 진행될 'OTT in Buddhism'은 다양한 OTT 플랫폼 속 불교 관련 영상콘텐츠에 대한 미리보기 서비스다. 〈편집자 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제공되는 가상 다큐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의 한 장면.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룬 미래 사회를 보여주며 인간의 존재에 대해 묻는다. 사진=아마존 구매사이트 캡처



>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 우린 어떤 형태가 될까요
> 그때도 우린 인간일까요
> 사이보그 인공지능일까요

한적한 어느 시골길. 심각한 교통사고가 벌어졌다. 차는 뒤집혔고 한 부부가 딸의 이름인 제스를 연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딸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나타난 인공지능 드론이 말한다. "사망 시각 9시 17분. 따님의 뇌는 사고로 인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화와 업로드를 위한 뇌검사를 원하실 경우 약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검사에 응한 뒤 72시간 뒤 딸은 아무런 상처없이 돌아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딸의 외모와 행동, 감정 표현이 똑같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배달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모든 기억을 가진 딸의 모습의 안드로이드는 과연 딸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제공되고 있는 가상 다큐멘터리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2017)〉의 첫 도입부이다. 한국어판 해석이 백만년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어쩌면 오지 않을 아주 먼 미래(Year Million)의 이야기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내셔널지오그래피에서 총 6부작으로 제작됐으며, 각 회차 마다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마인드업로딩, 가상현실, 텔레파시(초연결), 우주 이주 등을 이야기한다.

인간 존재론에 대한 의문

'제1부 호모사피엔스 2.0'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룬다. '제2부 죽는다는 말은 하지마'는 유전자 조작 기술로서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미래사회를, '제3부 내 몸은 어디에'에서는 마인드업로딩을 통해 현실을 떠나 가상공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리고 있다.

'제4부 감정 이입'은 텔레파시(초연결)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며 종국에는 사생활이 없어지는 미래를 보여준다. '제5부 지구너머의 에너지'는 소비 과잉으로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이며 '제6부 우주너머 그 어딘가'는 우주 탐사를 통한 외계생명체 조우에 대한 이야기다.

이중 1~4부는 미래의 가족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앞서 말한 죽은 뒤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된 딸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초지성체'다. 체스 경기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던 딸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로 되살아난 뒤 가볍게 승리한다.

딸과 똑같은 모습을 하며 기억과 감정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부모보다 모든 면에 우월한 '초지성체' 안드로이드 딸을 과연 인간으로 대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물·무생물, 유기체·무기체, DNA유무는 앞으로 올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을 규정할 수 기준이 될 수 없다. 당장 인공장기들이 제작·이식되면서 많은 인간들을 살리고 있으며, 진보된 의수·의족들도 제작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 신경 등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故 로빈 윌리암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은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의 이야기를 그린다. 여기서 가정부 로봇 앤드류(로빈 윌리암스)는 각성하고 사고하며 흡사 점점 인간과 흡사한 모습이 된다. 연구를 거듭하며 앤드류는 결국에는 늙어갈 수 있는 인간이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 법적으로 인간임을 인정받게 된다. 영화에서는 앤드류가 인간임을 인정받는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앤드류의 지적이 날카롭다.

"재판장님은 제가 개발한 인공신체 장치를 몸 여러 곳에 이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은 인간입니까 로봇입니까."

다큐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갈수록 인공지능의 쓰임새가 확대되고 지능이나 기억처럼 복합적인 기능이 실시간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우리가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생물학적 원형이 아닌 인체의 새로운 모형인 사이보그종이 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

유전자의 우열에 기대지 않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미래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다시 말해 인공신체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인간을 과연 인간으로 부를 수 있냐는 의미다. 나아가 완벽한 인공신체를 가진 초지성체도 인간의 존재에 넣을 수 있겠냐는 존재론적 질문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큐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는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의 저서 〈AI부디즘〉을 읽으며 사유해볼만 하다. 책에서 스님이 던지는 첫 화두는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는가"였다. 이에 대해 스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답했다.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새삼 나는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떠오른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할 것은 불성이 머무는 소재가 아니라 그 불성 자체가 흐르는 모습이다."

죽음 극복한 인간의 다음 행보

다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의 장수는 머지않은 미래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제4차 산업기술혁명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의 진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전자 가위기술을 통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치료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로 비정상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서 정상 유전자로 수정하는 기술이다. 이는 혈우병과 같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다큐에서는 여기서 진일보해 아예 유전자를 조작해서 모든 병의 원인을 제거해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종국에는 맞춤형 아기의 탄생도 가능해진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가타카〉다. 인간의 자궁을 통해 태어난 열등한 존재인 주인공 빈센트가 자신의 꿈인 우주비행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맞춤형 아기로 태어난다.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조작과 이를 통한 생명의 잉태는 기존 종교·윤리관에 대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생명공학 기술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교계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병장수의 꿈을 이룬 인간의 다음 행보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어디서? 바로 가상세계이다. 다큐에서 부부는 대략 300년의 삶을 살았다. 부인의 300살 생일파티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한다. 나는 더 이상 현실에서 살지 않고 병환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남편은 만류하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죽음보다는 가상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방법을 택하겠다는 부인의 결심은 확고했다.

여기서 소개하는 기술은 '마인드업로딩'이다. 인간의 마음과 기억을 컴퓨터나 인공물에 전송하는 마인드업로딩을 가능성이 없는 기술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스 모라백, 레이 커즈와일 등 로봇과 인간의 사회적 융합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은 마인드업로딩의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어서다. 실제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 따르면 이론상 사람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필요한 연산 능력은 10^16cps(calculations per second)라고 한다. 마인드업로딩이 이론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정신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다.

이 같은 미래사회에서도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죽음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과연 종교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통과 윤회를 끊어버린 가상세계에 입성하는 것을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회차마다 관련된 과학기술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만, 살펴보면 이들 과학기술은 기민하게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 나노봇이 혈류로 들어와 유전자를 분석해 병인(病因)을 제거하고, 초연결 디지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며, 가상세계 안에서 영생을 꿈꾸는 다큐 속 가족의 이야기를 오지 않을 세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모를 미래 시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나지 않는 질문은 "먼 미래, 인간은 인간답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 대체 인간은 무엇일까"이다. 다큐가 실제가 된다면 인간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현대불교 취재부장〉



탈퇴공고

- 종 단 : 한국불교화엄종(불령사)
- 회 주 : 영 암 (속명 / 김외태)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로 296-83

위 본인과 종단은 귀 협회를 탈퇴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일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

해체공고

- 종단명 : 한국불교화엄종
- 대표자 : 영 암 (속명 / 김외태)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로 296-83

상기 종단을 해체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일